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김 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국제대학	파견기간	2022년 9월~2023년 8월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 학교는 현지인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과는 떨어져있으며 주변은 주택이나 작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p> <p>강의실이 여러개있는 5층정도의 건물이 6개 정도 있으며 실내 체육관과 운동장이 있습니다.</p> <p>학교 축제같은 행사도 이루어지도 자유롭게생활하며 수업을 듣는 등 한국의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p>
2022-2학기 수업	<p>기본적으로 유학생별과에 소속되며 전체적으로 일본어 독해, 문법, 회화 등을 배웁니다. 수업에서는 한 수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교재 구매없이 수업마다 별도의 프린트를 나누어주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p> <p>그리고 이 학기에서는 일반 학부의 수업을 청강의 형태로 들을수가 있었는데, 일본학생들과 같이 수업은 듣지만 시험이나 과제는 치루지 않고 유학생별과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매겨서 수업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청강으로 듣는 수업은 유학생별과의 수업과 겹치는 수업은 들을 수 없었지만 JLPT N1 을 보유하고 있으면 겹치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p> <p>수업은 일본어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수업중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PPT 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이 참신하고 나쁘지는 않았지만 매주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p>
2019-1학기 수업	<p>이 학기에서도 일본어 수업들은 동일하게 진행되었지만 학부의 수업을 수강하는부분에서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와는 다르게 청강의 형태가 아닌 과제도 받고 시험도 같이 치뤄서 성적도 일본 학생들과 같이 매겨지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들을 전공과 비슷한 과목들로 꾸려서 학부의 수업을 들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학교의 국제교류센터에서 유학생들을 관리해줍니다. 일본 학생들과 참가할수있는 프로그램이나 학교 외부에서 일본 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습니다.</p> <p>교환학생 첫학기에 학생 개별로 1:1 상담을 통해서 학교나 일본 생활에 대한 적응을 체크하는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전체적으로 부산과 비슷한 날씨입니다. 기온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서 좀더 덥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겨울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집과는 다르게 방열이 잘 되지않아서 에어컨을 켜지않으면 여름에 집안이 바깥보다 더 더울정도로 덥고 겨울에 한기가 그대로 전해져서 매우 춥습니다.
안전	한국만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치안상태입니다. 작은 도로에서 차를 마주쳤을때 차가 먼저 멈춰줘서 지나가게 해주는 상황이 일반적이라 보행자입장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건이나 사고를 보기 힘들지만 평소에 사이렌소리가 많이 울리는 편입니다.
숙소	처음에는 학교에서 소개해준 원룸에서 생활을 했는데 핸드폰 신호문제, 싱크대 수도관문제, 바퀴벌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는 학교까지의 거리로치면 비슷한 곳에 있는 셰어하우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지는 않지만 길지도 않은 기간동안 있는 만큼 다른 가구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수도,가스,전기의 계약도 하지 않아도 되는 셰어하우스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귀국할때가 되었을때도 간단하게 정리할수가있었습니다.
식사	수업이 평일에 매일 있었기때문에 평일 점심에 학교에서 학식을 먹었습니다. 식당은 세군데가 있는데 식당 2 층에서 350 엔의 가격에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는 식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행갈때나 가고싶은 식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교통	통학은 도보와 지하철을 통해서 갔습니다. 일본의 교통비는 비싼편이지만 학교를 통해서 정기권을 구매하면 꽤 저렴하게 특정구간에서의 지하철 이동이 가능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0	중간에 귀국 1 회 포함
Fees		
보험료	37	국민건강보험 월 2.3 만 학교보험 1 회 10 만
숙소	600	관리비 포함 월 50 만
식비	360	평균 1 일 1 만 기준
교통비	40	정기권 3 달 8 만 + 공유자전거 등

책값	2	1 권
기타 1	1	행사 참가비 등
기타 2		
합계	1110	

5. 출국 전 준비사항

일본의 긴 휴가에 따라 타지역으로 갈때 교통비가 크게 차이나기때문에 여행계획은 미리미리 세워서 교통편과 숙박을 미리 구매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숙소는 방에 따라서 보증금, 사례금, 퇴실시 비용을 잘 알아보고 계약해야 되고 집 주변의 인프라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별도로 동아리에 참가하거나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학생들과 마주하거나 대화할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실력을 더 늘리거나 친구를 사귀고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제 기준으로 군대를 제외하면 가족들과 처음으로 떨어져서 생활하는것이고 혼자서 생활하는 만큼 처음에 자리를 잡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아는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픈 상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 어플이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외국에서 비슷한것을 찾고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고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한국음식의 접근성도 좋고 한국사람도 많이 있어서 적응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매우 가깝기때문에 방학에 잠시 집에 다녀오는것도 어렵지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만족스럽지만 학부의 수업을 듣는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들어도 어려운부분을 외국어로 들으려다보니 먼저 들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한다음에 내용을 이해해야하다보니까 수업을 들을때마다 머리가 힘들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교때만 경험할수있는 교환학생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으로는 할수 없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돌아온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 장 이상)



오사카의 대표 관광지 도톤보리



유학생별과 학생들과 같이 간 10 엔동전 앞면에있는 '보도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일본 고등학교 부활동 체험



간사이공항 안내 봉사활동



집근처 강 풍경